

# 예술-디자인, 디자인-예술

Art-Design, Design-Art

이병종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Lee, Byeong-Jong

Dept. of Industrial Design

## 1. 서구 현대 예술과 디자인의 형성과정

인류는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형태의 예술을 개발하였고, 그 속에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예술작업은 벤야민(W. Benjam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적(物的) 그리고 전시적(展示的) 사용을 위한 존재(存在)의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동기로부터 시작된다. 물적, 전시적 사용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란 사회적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예술은 생산관계의 역사적 단계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어 왔다. 서구의 고대 농노제와 중세 봉건제 시대의 예술은 종교정치적 지배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예술가는 지배계층에 속하거나, 지배계층에 소속되어 농노제 또는 봉건제에서 요구되는 것(신전과 제사용품, 사제들 및 귀족들의 지배적 권위를 공고히 하는 것, 도시 시설물과 병기 등)을 생산하였다. 이 시대 예술가의 생산활동은 논리학과 윤리학(신학)에 기초한 지적노동과 도구를 다루는 육체적 노동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장인기술로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테크네(techne)」, 로마 시대에서부터 중세까지는 「아르스(ars)」라고 불리었다.

13세기부터 상업자본의 성장으로 봉건제의 해체와 함께 자본제도의 이행이 시작되었고, '신'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지적 사유의 중심이 바뀌는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상업자본의 성장은 수공업적 생산방식을 낳았고, 지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와 분업화를 이끌었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예술이 높이 평가되고 미(美)가 세속화된 종교의식으로 숭배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예술가들은 세속화된 미의 숭배에 몰두하였고, 공예와 과학으로부터 예술의 분리를 촉진시켰다. 다른 한편,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시작된 지적 사유의 혁명은 과학혁명을 일으켰다. 과학은 인간과 그 외적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인간의 사유와 사회 그리고 자연의 법칙성을 탐구해 나감으로써 기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자연의 법칙성을 다루는 과학, 즉 자연과학은 17세기부터 실험과 그 장치의 개발에 따라 왕성한 발전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민들은 신학을 대신하여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를 담보해 나갈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결국, '절대 이성'의 합리주의를 내걸며 반(反)신학을 표방하는 근대 예술이 과거의 예술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근대 예술은 「순수」라는 이념의 형태를 나타내는 미의 산물로 정의되고, 그 어떠한 예술의 사회적 기능도 부정하는 예술지상주의의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자본제 산업생산관계가 안고 있는 시민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자, 미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순수」 예술의 예술지상주의 미학이 부정되었고, 산업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미학의 정립과 산업사회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예술의 길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순수」 예술에 반(反)하여 사회적 미를 실천하는 실용예술로서, 건축을 포함한 디자인의 전문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순수」 예술은 그 동안 사회적 미의 실현을 위하여 전문화의 길을 걸어온 현대 디자인과 새로운 형태로 재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자본제적 생산관계의 형성에 따라 사회적 미와 그 실천 대상의 변화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 2. 사회적 예술과 디자인-예술

미학은 감성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의 회랍어 <aisthētikē>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간의 '미적 행위(ästhetische Aktivität)'에 관한 과학과 이론의 총괄개념을 뜻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는 '미적 행위'의 본질이 미의 법칙에 따라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있고, 이는 미의 법칙에 대한 인식 내지 예감을 전제로 하며, 또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대한 방향제시의 기능을 하는 특수한 가치표상의 형성 및 실현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학은 이러한 '미적 행위'의 제 법칙, 즉 '미적 행위'의 다양한 형식, 발전 조건, 구현 방식, 발전 전망 등을 탐구하여, 이를 추상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형성되는 미의 객관적 법칙성에 관한 이론적 체계이다. 여기에서 미적 생산과 수용이라는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는 사회적인 '미적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로부터 미학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과 사회의 삶을 향상시키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 현상에 대한 미적 가치평가에 대해 아도르노(Th. W. Adorno)는 '미(美)'와 '추(醜)'라는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개념의 변증법으로 설명하였다. '미'는 긍정적인 평가의 방향으로, 못마땅한 거부의 평가방향을 의미하는 '추'라는 안티테제(Antithese)의 미적 반성을 통해서 비롯된다. 또 '미'와 '추'라는 가치평가의 형식은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보편 타당성을 갖지만, 그 형식적 차원에 잠재하는 내용은 역사적·사회적 관계의 작용으로 시대, 지역,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예술은 각 시대마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추'를 부정하고 '미'를 실현시키는 사회적인 '미적 행위'의 실천과정으로 설명된다.

『순수』 예술분야에서 사회적인 '미적 행위'의 실천에 대한 노력은 양 차 대전 전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후기자본주의체제의 사회적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사회적 '미'의 실현에 대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국식 상업주의적 자유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예술지상주의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예술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로부터 예술의 해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추상표현주의 예술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됨으로써, 현대 예술의 비(非)예술(Unkunst)화가 확산되었다. 이에 자유주의에 매몰되어 비예술화된 예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미의 실현을 위한 반(反)예술 운동이 젊은 전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들 플럭서스(Fluxus)와 보이스(J. Beuys) 등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반예술운동은 예술분야의 68운동으로서, 무엇보다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예술가의 예술지상주의적 이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당시의 『순수』 예술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예술을 위한 예술'에 따른 자원과 인간의 창조활동의 무의미한 낭비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자원과 인간의 창조활동은 디자인과 같이 사회구조상의 특정 목적을 갖는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반(反)개인주의적인 공동체 의식의 실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예술 형성을 지향한 의식적인 반예술활동은 자체적으로 예술의 최고 형태로 부각되었고, 당시 급속히 성장하던 예술산업으로부터 개인적 관점에 따른, 자율적 예술의 유일한 형태로써 지지를 받게되었다. 그 결과, 단지 자율성의 원칙만을 따르게 된 반예술활동은 갈수록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유성(liberality)에만 집착하게되어, 미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비예술화되는 자기 모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더욱더 난해한 개념들을 갖고서 현대적이고 전위적인 인상만을 일깨우며 엘리트의 자율성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예술의 높은 수준을 입증할 '예술을 위한 알리바이 예술'이 필요했던 예술산업에 의해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최상의 지적 형태로 설명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대 예술은 그 난해한 개념을 통해 지식 엘리트들의 지적 과시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경탄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 예술의 비(非)예술화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대안적 예술로서 사회적 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새로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미의 실현이란 황폐해버린 일상사물 환경에 대한 미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로부터 일상사물의 환경에 대한 미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미의 경험을 일깨움으로써, 일상사물의 미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대안적 예술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현대 예술의 미적 실천활동에서 사회적으로 특정 물적(物的) 기능을 갖는 일상사물과 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남으로써, 현대 예술은 디자인분야로 확장되고 디자인-예술이라는 새로운 전위예술을 이끌어내었다.

### 3. 예술-디자인

디자인은 『순수』 예술과 달리 산업생산물을 그 사회적인 '미적 행위'의 실천대상으로 한다. 이는 디자인이 산업생산물을 통해 사회적 미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여기에서 사회적 미의 실현이란 산업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미학이 산업생산물과 사회적, 생산기술적, 경제적 차원의 구체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미학과 산업생산물의 사회적 차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미의 실현이란 산업생산물에서 '미'와 '추' 개념의 사회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산업화 초기 사회에서 산업생산물이 갖는 사회적 미 개념은 인간의 물적 복지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사회적 미의 실천은 바로 물적 기능의 최적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테일러주의에 의해 극도로 경직된 산업생산물들이 환경을 살인적으로 황폐시키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물적 기능의 최적화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미가 실현될 수 없었다. 디자인에서 사회적 미의 실현을 위하여 물적 기능 뿐 아니라, 미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의 최적화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먼저 이탈리아에서 래디컬 디자인 운동으로부터 그룹 알키미아를 거쳐 그룹 맴피스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적 미를 실현하는 디자인은 인간의 의식과 생활환경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사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비판적 이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디자인의 형태적 표현형식에 집중하였다. 당시 확산되던 반예술운동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의 행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멘디니(A. Mendini)는 일상사물이 갖는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미를 재정립하고자, 『바날디자인(Banal Design)』 개념을 이끌어내었고 이를 실천해나갔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그룹 맴피스는 산업생산제품에서 미적 경험의 영역을 극도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전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전위적 디자인운동을 통하여, 디자인은 사회적 미의 경험을 산출하는 미적 행위를 실천과정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디자인에서 나타난 예술-디자인 활동은 80년대 맴피스를 추종하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특히, 스타르크(P. Starck), 아라드(R. Arad), 모리슨(J. Morrison)과 같이 대중매체를 통한 맴피스의 성공을 동경하는 이들은 대중매체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도발적이고도 전위적인 행위라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80년대 중반부터 서구 예술산업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현대 예술로서의 대규모 기획전이 이루어졌고, 산업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지적 엘리트만의 전유물이었던 현대 예술이 점차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인 미적 경험을 위한 미의 실현이 오늘날 서구 현대 예술과 디자인의 중심이 되었다.